朝鮮日報
第二夕刊
三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
朝鮮日報社

獨軍動員四百萬
마지노線突破에百萬犧牲覺悟
空軍、近近英本土大空襲

【紐育三十一日發同盟】UP經濟特派員은 獨軍今後의 作戰에關하여 三十一日 中立國軍事專門家의 觀測으로서 다음가치 報道하엿다

獨逸國軍은 現在 四百萬에達하는 大兵을 動員하고잇는데 그內譯은 다음가트다

陸軍三百五十萬人 百五十師團 空軍四十萬 一萬機 海軍七萬三千人 潛水艦六十五隻 主力艦二隻 袖珍戰鬪艦三隻

獨逸은 波蘭作戰이 迅速히終了하엿스므로 全力을 一正面作戰에 集中할수잇게되엿고 英佛兩軍을 相手로 西部戰線에 全力을 傾注할수가 잇서 必要가잇스면 佛軍의 突破에 失敗한 지그프리드 要塞線 或은 그背後에 精銳七十師以上을集中시켜서 戰局을決할 決意를 굿게한 模樣이다 獨軍司令部는 마지노線이 堅固할망정 또한 지그프리드線에 가자인는것을 知悉하고잇다 그突破에는 百萬의將兵을 犧牲하지안흘수업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成功을 期할수 업는 模樣이므로 나치스軍事消息通도 빨리 獨軍步兵으로서 西部戰線에大作戰을 展開하지는 안흘것이라고 보고잇다 그리고 獨軍의 空軍이 何故로 英國에 對하여 爆擊을 開始하지안는가를 說明하지 못하고잇는데 멀지안허 空軍出動命令이나와 獨空軍의 英의 船舶、鐵路、武器、飛行機工場을破壞하고 이어서 英軍事工業으로 하여금 될수잇는限速히不具狀態에 빠지게 하게될것이다

定例參議會

【東京電話同盟】二日定例參議會는 午前十時首相官邸에서開催 鄕參議以下各參議(松岡氏缺席)出席 政府側으로부터 阿部首相이特히 出席하여 一日의興亞院會議에서의 日支國交調整方針에對하여 經過報告를 하고 여러가지로懇談을하고 正午散會하엿다

獨의"파라슈트"戰法
英野戰當局極度로警戒

【倫敦發同盟】佛國에잇는 英國野戰當局은 二種의獨逸의攻擊形式을 考慮하고 充分한準備를하고잇다 그攻擊形式은

一、바로前進攻擊하는境遇
二、落下傘으로降下하여 後方으로부터 攻擊하는境遇

의두가지다 라임스從軍記者가 報道하는바에 依하면 英司令部는 第二의攻法을 特히警戒하여 前線에서 멀리떨어진 後方에對하여도 모든戰略地點에 充分한守備力을配置하고잇다 이新攻擊法은大規模이고 後方의兵力이均衡을가지고잇는戰爭에는아직試用된적이업스나蘇聯은 이戰法案出者로서充分한演習的研究를 해왓다고한다 그리고獨軍은對波戰에서 兵士에波蘭軍制服을 着用시켜落下傘으로降下하여 橋梁、彈藥庫、軍事本部等爆破에成功하엿다 軍事專門家意見에依하면이落下傘戰法은限定된兵員밧게 降下못하며 이로써 決定的戰果를 期待할수는업다고하고잇다 그리고 數百의決死隊를 重要地點에降下시킴으로써 聯絡線을遮斷하고司令部를襲擊하는等은損害를줄수잇다고한다 最近數次에亘한 獨空軍의 英國空襲은 이意味에서 英國의防禦力을 試驗하고 그리하여 集中攻擊을 敢行하려는 獨逸의意圖를 보이는것이라하여 注視된다

獨軍을擊退

【巴里一日發同盟】前線에서巴里에 達한 戰況情報에依하면 佛軍은 佛國境北端의 前線에잇는村落을 侵入하려한 約一千名의 獨部隊를擊退하엿다 兩軍의損害는 아직不明하나 佛軍은 若干名의 獨兵을捕虜하엿다 右獨兵은 千바하의 西와르트森林에서捕虜하엿다

米의新中立法에 獨은海上封鎖破壞

【伯林發同盟】米國의 新中立法上院通過에 關하여는 獨逸新聞은 極히 簡單한 報道에 그치고잇스며 獨逸官邊에서도 一切 批評을 避하고잇스나 二十八日 나치스黨機關紙는 米國態度에 憤慨를품고

新中立法이 議會를 通過하여 武器禁輸條項이 撤廢되면 英佛側은 意外의 困難에逢着할것이다

라고 暗示的意向을 漏洩하엿다 一方政界消息通도 「米國의 新中立法이 成立되면 獨逸의作戰行動을 急速化하여 英佛兩國이 米國으로부터 武器供給을 밧기前에 海上封鎖를 破壞하는作戰을取할것이다」라고하고잇다 그리고 官邊도米國의態度가 親英佛的인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고하고잇다

一日閣議經過

【東京電話同盟】一日閣議는 午前十時卅分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 阿部首相以下全閣僚出席 野村外相으로부터 一日 興亞院會議에서決定된 日支國交調整의 新方策에關하여 會議經過를 詳細히說明 各閣僚의諒解를求한 다음 酒井農相으로부터 米穀需給對策進捗狀況에關하여報告 同十一時卅分 散會하엿다

聖上·外苑에行幸
各種演技를御親覽

【東京電話同盟】國民體育에對한 大御心은極深하옵시어 恐懼하옵시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二日 明治神宮을 御親拜後에 事務下御政務御多端하옵심에도 不拘하옵시고 御十年만에 聖駕를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第五日되는날外苑競技場에 臨御하옵시와 一代의 光榮에 男氣百倍된 銃後의 青年들의 渾身의 힘을 다한演技를 親히 天覽하옵시다 聖恩下에 天氣는 晴朗爽快 神宮大會四萬의 選手뿐만 아니라 全國民을 들어 멀리 大陸曠野에잇는 將士에까지 널리 光榮을 나눌 銃後明朗의 感激譜이다 外苑競技場은 明朗한 秋陽에祝福바더 奉迎準備도 遺憾업시緊張된데에 午前七時四十五分부터 師範、中等 兩部의 蹴球決勝戰을 開始한바 同時에 男子籃上競技와 他會場의 各競技가 모두 白熱의 進行을 보인바 此間籠球、排球、男子百米決勝等의 出場者를決定、午後零時부터 奉迎體制에 옮겨 玉座下 先頭에는 聖恩의 標幟를 그 뒤에는會長、二副會長、參與等이 列立、役員選手代表團 四十名은 役員團을 最右翼으로 劍道部、柔道部、弓道部等一列부터 八列까지 縱隊의 演技部集團을지여 各競技團의先頭로整列、이미午前七時、날밝기를苦待하던 一般觀衆은 잔디밧左右指定席에 約八千人式着席 그中央及左右에 役員選手約一萬三千人의 座席이 設置되엿고 玉座를向하여 左側에는 御陪招待者約三千五百人、中央에特別招待者約 一千人、最中央에는 朝野의 名士百餘名이 參席하엿고 또 右側에는 特히 白衣勇士七百五十八人이 參列、右側에는 役員選手三千名의 座席이잇서 總觀三萬八千餘人에 한바 全員起立裡에 陛下께옵서는 陸軍御軍裝에 大勳位副章을 佩用하옵시고 松平宮相、百武侍從長、蓮沼侍從武官長等을 隨行케하옵시와 陸軍軍樂隊의「國歌」奏樂裡에午後一時半會場에 御着、鷹司秩父宮同妃、高松宮同妃、竹田宮、李王妃六殿下、阿部首相、小原會長以下役員等奉迎裡에 副會長岡田厚生大臣의 御先導로 便殿에 着御少憩後 同三十五分 海軍軍樂隊의「國歌」奏樂裡에 玉座에 出御하옵시엇다 御紋章을그린 紫色幔幕이 微風에 날려 매우崇嚴하다 玉座의 御右側에는 御說明役이신 秩父宮殿下 外에 各皇族殿下 左側에는 供奉하는 顯官阿部首相、大角海相、野村外相、畑陸相、吉田海相、河原田文相外 各大臣 松平、小山貴、衆兩院議長 平沼元三氏等이 侍立하고 잇다 이때 森體育官의 號令으로 總員最敬禮를하자 陛下께옵서는 恐懼하옵게도 擧手의 禮를 하옵시엇다 奉迎式은 먼저 小原會長 恭謹 式台에 올라가 奉迎文을 捧讀한 다음 會長의 發聲으로 全員이 天皇陛下萬歲를 奉唱 再次 總員最敬禮로 閉式 필드內의 役員選手團은 退場하여 所定의 席에 들어갓다 이리하여 一時五十二分 드디어 天覽演技를 開始되엇다

奉拜하온즉 陛下께옵서는 演技프로그람을 御前机上에 노흐옵시고 秩父宮殿下와 여러가지로 御談話를 交하옵시면서 御熱心으로 御觀覽하옵시엇다

男頭出場의 光榮을 입은 東京府下五十一工場男女從業員一千二百四十名은 大日本國民體操、日本産業體操로써 團體力과 意氣를보인後 大學高專과 一部府縣選手의 猛烈한 劍道集團試合이잇는 今朝에 決定된 中等、師範兩部對抗蹴球戰이 近代的스피드로 演出되엇다

陸上競技는 一般男子 八百米決勝으로부터 同百米決勝 또愛知外五府縣代表의 一般女子 四百米리레決勝等을 天覽에 供奉하오니 陛下께옵서는 特히御興깁게 御覽하옵셧다

最後로市內公私立二十八高女二千百名의 大日本女子青年體操가 第三高女敎諭 池田久光氏指揮下에 律動的으로擧動 다음에 青山師範、豐島師範、大泉師範、日體의四校 一千四百四十名의 大日本青年體操가 豐島師範敎諭谷池茂雄氏指揮下에 一絲不亂의集團美를 發揮하여光榮의最後를裝飾하엿다 이리하여午後三時五十七分 一切의天覽競技를마쳣다 此間二時間이나 競技를終始御熱心御觀戰하옵섯다 聖上陛下께옵서는 秩父宮殿下의 御說明을 들으옵시면서 御滿足하옵시고 때로는玉體를 내미옵시사 國民의 身心鍛鍊에 勵하옵시는 聖慮에 出場選手는 勿論 멀리拜하는 一般觀衆도 기픈感銘裡에 恐懼하엿다 陛下께서는 總員의最敬禮에 目禮를賜하옵시고 陸軍軍樂隊의 國歌奏樂裡에 便殿에入御 皇族殿下役員等의 奉送裡에 還幸하옵섯다 그리고 이날의 狀況은 一時二十分부터 中繼放送이잇서 AK和田아나운서로부터 坊坊曲曲 電波를 通하여 全國民에게 傳達되엇다

秩父總裁宮殿下
各競技場御巡覽

【東京電話同盟】恐懼하옵게도 秩父總裁宮殿下께서는 一日午前八時半 外苑競技場에 行啓 籠球北地競技對抗決勝戰을 親히 御覽하신後 外苑假弓場에 台臨 古式도 端雅한 弓道를 御覽하신 後、同十時지나 一旦御歸邸、午後三時四十分부터는 麻布小學校에서의 卓球會場에 台臨하시사 一般男女府縣對抗及 OB對抗試合을 約五十分間、그리고 同四時四十五分부터는 一橋國民體育館 一般男子 團體體操競技를 各其 親히 台覽하시고 同六時지나 御歸還하셧다

駐日蘇聯大使
二日、南總督訪問

赴任途中에 一日入京한 新任駐日蘇聯大使스메타닌氏는 同京城總領事 주요고氏 大使館參事官마리크氏를 帶同하고 京城代理領事이와노프氏의 案內로 二日午前十一時 總督府로 南總督을訪問하고 新任人事를 述한後 總督府內를 觀察、午後에는 昌德宮에 伺候하엿다 同大使一行은四日午後一時總督이招待하는 新官邸披露茶話會에 出席하고 同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一路東京에 赴任할 豫定이다

西部戰線에白雪

【巴里發電】西部戰線에서는 卅九日夜 突然 寒波의來襲을바더보주山脈、자르地方一帶의 山野는 白雪로 더퍼젓다 마지노、지그프리드兩要塞線이 對峙하는 西部戰線의陣地線에서는 飛行機가 唯一한花形役者가되어잇는데 惡氣候繼續으로 이花形役者도 全혀그活動을 封鎖當하여 벌써冬眠狀態에 빠지게되엇다 이들事情을 綜合하건대 西部戰線이活氣를띄기始作하는것은 來春을 기다리지안흘수업게된다고 一般은 보고잇스나 獨軍의相當進擊은 今冬中에可能하다는 指摘도 잇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獨軍最高指揮者인 히틀러總統의 決意如何에 걸려잇는바인데 히틀러總統은 軍首腦部會議에서 여러가지로 갈피를 잡지못하고잇다는 見方도 如何히 裁斷할것인가 그것은 히틀러

獨蘇重壓에對抗
다뉴브聯邦을組織
옷토公을中心計畫進行

러總統은 政治家이지만 軍事專門家가아니고 하물며 나폴레온가튼 偉傑도못된다고 佛蘭西에서는 보고잇다 一方佛蘭西에서는 더욱軍需工業의 擴大强化에 努力하여 모든軍需資材는 着着充實化를 圖謀하여 戰勝에差支가업게하려고 努力하고잇다

【白耳義發電】다뉴브流域 諸國을 歐洲의 一大聯邦組織計畫이 歐洲敗殘國의 首腦에서 進行되고잇는 風說이 이러나서 流亡한 이聯邦組織의 首腦에는 합스부르크家의 옷토公을 推戴하려고하는데 北方의 스칸디나비아聯邦計畫과도 呼應하는것이라 한다 이것은 벨르사이유體制에依하여 생긴敗殘의諸小國이 結局 獨逸과蘇聯의壓力에 견디지못하고 獨立을完全히하려면 大同團結을 斷行하지안흐면 안된다는 意見이有力하게 擡頭하고잇기때문이다 이運動은 아직어느나라의 政府도公式으로 認定하고잇지안흐나 關係諸國政府는 이運動의 存在를 重視하고잇다 옷토公은 巴里滯在中 二週日前二回나 달라디에首相과 會見하엿는데 第一回時에는 復辟問題에關한 相議가 잇섯다고한다 이運動은 後援하는方面에 잇서서는 英佛兩國政府가 自國內의輿論에끌려 戰爭目標를 表示할境遇에重要役割을 演하기위하여도 이運動이 速히具體化하기도바라고잇다 그때에는 伊太利의地位가 이빨간新體制 創始에잇서 가장 重要視되는바 데모크라시國家가 이計畫을贊成할때는 計畫內容을 伊太利에詳細通告할것으로보인다 다뉴브聯邦은 結局 伊太利、匈牙利、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等이 包含될것이라는바 關稅同盟도兼하여 經濟的協力을하려고하는바 그것보다도 가장重要한것은 外部의 壓迫特히 蘇聯과獨逸의領土的侵略威脅에對抗할 一致된 外交政略을 取하는데 잇다한다 그러나 이運動은 至難한運動이다 前大戰以來 諸少國은 합스부르크家를拒絶하고 聯業을피함을 두려워하여 합스부르크家復辟에 極力反抗해온것이다 따라서 英佛의 策謀家들은 옷토公의 復位를 極力支援할는지모르나 다뉴브諸國間에서 强力한 反對가잇는時는 옷토公後援을 中止할것으로보인다

重慶政府大規模의 訪米使節團派遣
宋子文等十六名香港서待機?

【上海二日發同盟】中華日報香港特電에 依하면 歐洲動亂以來對米外交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는 重慶政府는 近近十六名의 大規模의訪米使節團을보내기로決定하여 團員은이미香港에 集合하고잇는데 便船을기다려 米國으로 向發할터이다 그리고 團長으로서 宋子文이渡米하여 例의對米借款問題에大活動을 할터이라한다

米大豆輸出記錄突破

【新京三十日發同盟】最近米國大豆輸出市場은 이記錄突破의盛況으로 各方面의注目을 끌고잇는데 이것은 戰爭勃發以來 滿洲大豆의供給이 杜絶된關係라한다 그런데今年度 米國大豆의輸出은 六千五百萬 부셀인데 이에比하여 昨年同期의輸出은 二百六十萬부셀 一九三七年度에는 百三十萬부셀이엇다 一方今年度의 生産額은 八千萬부셀로 豫想되는데 이것은昨年度의五千七百六十六萬五千부셀에 比較하면 자못增加를 보이고잇다 그리고이歐洲向輸出에 關하여는 大豆로부터 爆藥을製造하는方法이發明된때문이라고하는데 輸出業者는 그리이것을 밋지안는다

英帝國會議開催
對戰根本方針을決定乎

【倫敦一日發同盟】英政府及自治領代表로써 英帝國의根本的對戰方針을決定할 英帝國會議는一日午後에열린首相官邸會下에 다우닝街首相官邸에서 開催키로되엇다

滿洲特産物 對日輸出量增加

【東京電話同盟】去十日以後一個年間에잇서서 滿洲産大豆와豆粕의 對日輸出量에關하여는 미리日滿兩國政府當局이 折衝을거듭하고잇섯스나 이지음暫定的으로大豆는 九十萬噸 豆粕은百五萬噸으로 各其決定케되엇다 그리고 이것을 前年度에 比하면大豆는 三十萬噸 豆粕은 三十萬噸 增加로되는데 我國에서는 이러한 滿洲特産物에 對한 內地의 需要增大에 鑑하여 다시 이以上의 對日輸出量의 增加를 希望하고 잇고 一方 滿洲國으로서는 特産物의 內地輸出은外貨獲得이 되지안는다는 見地에서 爲替關係를 考慮로 相當히 難色을表示하고잇스므로 結局滿洲特産物의 對日輸出의 增額에잇서서는 今後에도 輸入額과의 사이에 一定한比率을 設하고 我所持外貨를 滿洲國側에로 給하므로써 解決될것이라한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閣議決定事項
一、朝鮮小運送業令改正의件(勅令案)

英佛最高軍事會議 …△印은 首相 ×印은 가믈랑佛軍總司令官 ○印은 英軍總司令官…

雲南省赤化工作
中共의組織活動活潑

【香港一日發同盟】昆明來電에依하면 西南地方에서의 中國共産黨의 擡頭는 雲南省內에서도組織的 活動과 「푸로파간다」의形式으로 活潑한動向을보여 同地方 市縣國民黨支部와의 間에 紛爭을 釀成함에이르럿스므로도 雲南省政府 主席龍雲은 極度로 狼狽하여 지난十月十二日 突然昆明市의 極左派 急進分子及 潛行活動中의 共産黨派分子 約二十名을 逮捕하고 同時에 三民主義와 國民黨中央黨部의 規定한抗戰救國方案에 反하는 運動과 宣傳은 그手段의如何를 不問하고 嚴重히 取締하기로되엇다

十月中計畫資本總額
七億五千萬圓
生産力擴充大規模化

【東京電話同盟】日銀調査=十月中計畫資本總額은 七億五千五百萬圓으로 前月比二億一千萬圓、前年同月比 四億二千七百萬圓의 著增을보엿는데 社數에잇서서는 九十七社로 도리어 前月에比하여 百六十二社의激減、前年同月에比하면 二社의微增에不過한데로 生産擴充의大規模化를 말하고잇다 그리고 이를計畫別로 보면 社債는 債券起債市場의順調를反映하여 二億七千六百萬圓으로 前月比較二億一千六百萬圓、前年同月比較一億六百四十萬圓의 各各著增하엿다 그리고 事業別로보면 依然히 化學、機械器具、金屬、時局關係의 製造工業의 生産擴充이 顯著한데 戰時輸送力擴充의 國策線에따라 海運及造船關係의 生産擴充이 進行되고잇슴은 注目된다 主要한것으로서는 新設된 尼崎人造石油(三千萬圓) 日本海海運(五千萬圓) 增資 三菱重工業 川崎造船所(各 一億二千萬圓) 等이다

日本窒素社債發行

【東京電話商通】興業銀行은三十日 日本窒素肥料第三回物上擔保附社債發行條件을 如左히 公式發表한바 今回發行額 二千三百萬圓中 五百萬圓은 신디케트團이擔當하고 殘額一千八百萬圓은市場公募로한다하며

一、發行金額 二千三百萬圓(社債總額七千萬圓中 第三回發行分) 一、利率年四分二厘 一、發行價額 百圓에 對하여百圓 一、償還方法及期限 發行日로부터 十個年但그中 二個年据置後 前半分四十六萬圓以上을 償還又는 買入消却 期限까지에 完濟 擔保依託 會社及擔保提供會社所有人 工場財團及 三靈鑛業財團 一、請負募集銀行 興業銀行及 朝鮮銀行 一、申込期限 十一月十日―十三日까지 一、拂込期限 十一月二十五日

對支帝國方策
正式決定은七日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二日 閣議에서 一日의興亞院會議에서 決定된 支那新中央政權成立에對한帝國의態度와 不動方針에關하여 報告하고 各閣僚의諒解를求하엿는데 新方針의一部에 對하여 興亞院에서는 아직研究中에 屬하므로 正式閣議決定은 이事務的準備完了를 기다려 오는七日定例閣議에서 하기로되엇다 (寫眞은阿部首相)

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畑陸相은 二日午前九時三十五分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所管事項에 對하여 奏上 同十時十五分退下하엿다

野村中將上海出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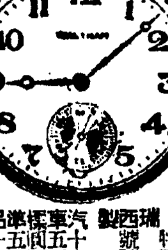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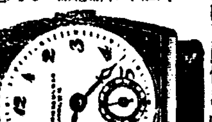
【上海二日發同盟】前上海駐在武官 野村海軍中將은 二日午前九時出帆 連絡船上海丸으로 內地歸還의길을떠낫다

八面鋒

◇모로토프蘇聯外相 演說曰侵略이、「侵略者」란말은 벌써無意義하다고。
◇蘇聯이 不侵略의 原則을拋棄한 때문인가。
◇波蘭進駐、발트沿岸、발칸進出을 理論化할 根據가 업스니까。
◇理論鬪爭도 同志道德도 다超越하고 오직 蘇聯의 實利主義、스타린政權의 維持만이 唯一의 理論이오、法律이오、道德。
◇伊太利內閣改造를 발칸諸國이 歡呼。
◇獨伊樞軸이 挫折될것으로 보는때문。
◇그러면 발칸諸國은 伊와親善乎、英佛과 提携乎。
◇依然 三角、四角關係에 잇는것이 발칸情勢。
◇道知事會議서의 總督訓示及指示事項은 모다事變及旱害突破의 積極的 建設方面。
◇이結果로 民有飽色하엿스면 얼마나 반가우랴。
◇北京行、新京行列車의 增發、釜山發奉天直通車의 運轉으로 旅客의 輪輸가 多少緩和된모양。
◇그러나 京城內 電車는 依然紛雜하니 緩和道理가 無乎。

新刊 警察 公定價格表
朝鮮總督府及各道知事의最高販賣價格表
朝鮮石炭中家庭用石炭의山元貨車販賣價格、纖維品綿系、綿布、燐寸、金屬品=아류미늄製品、毛製品、家庭用燃料=石炭、煉炭、木炭、=綿製品、아이三製品、琺瑯鐵器、皮革製品=靴鞄、牛皮、米穀其他用品=米穀、고무靴、된장、燐寸、物價抑止、經濟警察의取締는 愈愈嚴密하게되엇다。十一月一日부터는公定價格以外의 買賣는 賣者、買者가 모다處罰되게되엇다。此書는經濟警察物價取締의法規要旨와公定價格表를網羅한것이다。時局下의商人은勿論、一般家庭에서도 꼭一冊式備置하시옵
四六版 全一冊 定價 六十錢 先金送料 六錢
京城 新民社發行
總販賣所 京城府寬勳町一二二 振替京城九七五六番 三文社書店

滿員御禮
土と兵隊
黃金座

急告!!
販業者의中古品販賣에속지말고新品으로로 時局下時計의 在庫는 날노 수러저 至今은 거의 品切이 되엇스니 이 好機를 失하지 마시고 至急 注文하시요
新品 絶對責任付

瑞西製 汽車標準品
特甲 十五號 五圓五十錢
十二號 五圓三十錢
十個年保證品 時示正確

十個年間 時示正確保證
十八型 (金側型鍍金)(付技) 十九圓五〇
十九型 (金側型鍍金)(付技) 十七圓五〇
八型 (金側型鍍金)(付技) 十九圓〇〇
前金이 면 한 금 의 送料는 當行 負擔
滿洲國安東市一番通
歐亞洋行
振替京城二八六九六番
京城 四七四八番

한잔 마시면 元氣 旺盛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拜啓菊辰에
尊體多福하심을仰賀且祝하나이다 陳者北漢山麓貞陵里貞陵川上流에 松林水石을따라靈境一隅에淸水莊이라는料店을新築하옵고 十月三十日부터開店하여高級的奉仕로親切酬應하와 一般高客의要覽하시는四時의淑景을案內코저하오니 下命하여주심을바라오며 (追伸屬道車賃은弊店의自家用으로無料酬應하겟습니다) 餘冉不備敬
昭和十四年十月二十九日
東小門外貞陵里
朝鮮料理 淸水莊
電光③ 二〇三番

(1) 十一月十七日午前九時ヨリ 全鮮各刑務所出張所(京城、西大門、仁川、金山浦、小鹿島ヲ除ク)
(2) 十一月十九日午前八時ヨリ 刑務官練習所
京城府峴底町
朝鮮總督府看守募集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警察官講義合部全書

朝鮮及滿洲警察官志望者는本會의受驗準備書에依하야絶對合格保證
非常時立身出世
京城府舟橋町九四
鮮滿警察學會

アミノサン도매
(時勢表進呈)
釜山府瀛州町
丸星商會

入學試驗 本 完全三卷 出來
洋藥 漢藥
藥種商講義錄
京城西大門町一丁目
朝鮮藥業研究社

商標
千
고초가루
都吉
金子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電話 一二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數千가지處方재료
一年에五千圓以上 收得之人 御照介!
乾材藥賣上倍加記
七千圓까지利益
漢藥全集
支那秘藥朝鮮漢藥全部公開
朝鮮漢藥普及社
忠南大田

大歷史書
湖岩全集
朝鮮日報出版部

小口配給으로彌縫하고 混炭使用、騰貴防止
各道에는最低貯炭量의維持를命令
有事時饑饉防止確保
燃料需給過冬策
總督府燃料課當局方針

엄동을압두고 일반국민생활에 중대한관계를가진 석탄문제는총독부당국에서는 걱정이 업다고 장담을하나 실제일반시정에는벌써부터 부족하여 가위연료기근(燃料饑饉)에 빠지다시피한 현상이다 이에대하여 총독부연료과당국의 금년석탄수급(需給)방침을들으면 여전히 부족할염려는조금도업다고 장담을하고잇다 그내용의대개를 듯건대 석탄의생산량은 공급하고도 오히려남음이잇을형편이나 배편또는기차편이 부족하기때문에 단편에대량의석탄을수송하여 단번에완전히완화하기는곤란한현상이므로 선편또는기차편등으로도 여러번수송하여 소구(小口)배급으로써조금도염려에 곤란이업도록완화할수는잇스므로 이방법으로써 금번석탄수급의 원활을도모하기로되엇다 그리하여 총독부연료과에서는 각도지사에게 통첩을발하여배급통제강화를 단행하도록하엿는데 그내용은즉 첫째로는 각도석탄도매업자와 도당국이협의절충하여 배급계획을세우고학교、병원등 석탄배급에 우선권을 주지안흘수업는곳에 우선적배급순위를 결정한후 이에의하여 각소매상도 보조일치하도록할것이오 둘째로는 단번에수송저탄하여 배급하기는 곤란한터인즉 소구배급방법으로 연료부족의 완화를도모할것이다 셋째로는 금년도배급이 부족하기때문에 수송비가비싸서 석탄값이올라갈염려가 잇스므로 혼탄(混炭)즉 만주탄과 조선탄을섞거나는지 또는내지탄과 조선탄을섞거서 사용하여 가격등귀를 극력방지하며 그리고 관공청、은행회사등 대건물에 사용하는기관에는 분탄(粉炭)과 괴탄(塊炭)을 혼탄을사용하도록 하는동시에 수괴탄만은 절대로배급하지못하도록한다 넷째로는 각도시에 최저저탄량 유지를명령하여 경비기타관계로 수송불능의경우에 연료기근방지를 확보하기로되엇다 그리고또 석탄련탄회를통하여 전조선에 때는작법을 인쇄물로선전하여 석탄절약을보도록할방침이다

木炭은걱정업다
道直營의製炭所에서一萬俵
不日中京城에搬入

요즘부내의 기온도상당히 쌀쌀하여 일반가정에서도숫을 만히쓰게되는데 숫도석탄이나 쌀과가치 부내시장에 물품이적어좀체로사기가 어렵게되엇다 그런데경기도에서는 일직부터 이가튼틈이생기리란예상으로 금년봄가평군(加平郡)에잇는 도유림(道有林)내에 직영목탄제조사업을시작하여 목탄기근에 대처하고잇섯는바 최근이목탄을 반출할림도(林道)도 완성되엇스므로 이삼일내로 반출을 시작하여점차일만섬의숫이 시내에 들어오게되엇과 부민에게는큰도움이될것이다

明治佳節奉祝準備
今番엔國旗揭揚을徹底實行
府行事要項

명치절은 사변후 세번째마지하는 명치절이므로 경성부에서는 정신총동원 경성련맹과의공동주최로 여러가지의 봉축행사를거행하여 이날하루를 뜻잇게보내기로되엇는데 특히이날은국기를 다는일을 철저히하기위하여서 기를달지안흔집에는 애국반원이 일일이 이것을 조사한후 보고하기로되어잇스니 각가정에서는 잇지말고 국기를달아야할것이다 이날경성부민의 중요행사는 아래와갓다

◀오전아홉시를『국민봉축의 시간』으로정하고사이렌을 신호로부민은 각기마즌장소에서궁성을향하여 절을할것

◀오전열시오십오분 조선신궁광장에서 명치절봉축식을 거행한다

◀관청서 학교 각종단체 회사은행 공장에서도 각각봉배식또는 봉축식을거행할것

◀국기를 잇지말고 각가정에서달것

銃後國民生活安定에 軍은重大關心!
軍用貯藏麥의還元에對하여
朝鮮軍當局談話發表

조선군에서는 이번에 남조선한재민의 식량에 노함하도록 군용으로사둔 보리이십만석을 민간에 풀어노키로 되엇는데 이에대하여 조선군당국에서는 이일오전열한시에 다음과튼 담화를 발표하엿다

이번남조선지방의 일찌기 보지못한 한재에 대해서는 군은 총후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큰관심을 하고잇는동시에참으로 동정을 금치못하는바잇는데 이재민이 고난한가운데서도 씩씩하게도 자기힘으로써 분발하여 전심으로 이것을 극복하면서 매진하고잇는것은참으로감격하여마지안는다 군으로서도 한재구제에협력하기위하여 여러가지로 힘써연구중이던바 그한가지 수단으로서 군용으로 싸하두엇던보리 일부를 한재지주민의식량에 돌리고써 그대책을 다구하여 작전(作戰)용의 급양(給養)보급에 지장이업는한도에서 군용보리 이십만석을한재민식량에 돌릴수잇게된것은 군으로서의 본분으로생각하는바이다 군의뜻잇는바를양해하여서 이것을효과잇게 적당이 사용하는동시에 한재선후책의 완전을도모하여서 성전의 총후봉사에 매진하기를바라는바이다

사랑에울고 身勢悲觀하고
두妓生飮毒〔一名絶命〕

동경유학중의 남편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살한여자와 기생생활을 비관하고 자살하려는여자 일일오후열한시반경

◀부내관철정(貫鐵町)일백십일번지 김경숙(金京淑)(二〇)은시내장곡의『강파ー』를 먹고 약삼십분후에 절명하엿다 그는 일직기생시내에 가치살던 부내모누호의아들과의 사이에 나은딸을잇먹은딸까지잇는데 남편은 유학한다고 동경으로가고 시모가 화류계에잇던 여자라고 결혼을 승낙하지안흠으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한것이다

일일오후아홉시점

……는데 그는 삼년전오백오십원의 전차금으로 전기최에게 수양녀로와서 기생영업을 한는중기생이실허서 그가치 자살하려던것이다

딸팔아먹기에 인백인애비

딸팔어먹기에 이골이난작자—부내 홍제정의 향상대 청섭조(李朝榮)(五一)은 무남독녀인영순(李榮順)(一八)이를 두번이나 술집에 팔아먹엇섯스나 그때마다 도망을 하여왓스므로 친척들이 불상이여기고 빼내주엇섯다 그러나 딸팔어먹기에 이골이난이조영은 지난시월 이십팔일또다시 아현정(阿峴町)二十이번지이춘연(李春姸)소개소에가서 딸을팔어달라고부탁을하고는 우선이백원을 바더가지고 주식(株式)시장에 갓다가 홀딱올려버리고말엇는데 영순은 팔리기가싫여몰을일가집으로 피하고말엇스므로 서대문서에 사기죄로 붓들리엇다

朝鮮文化映畫
鐵道局에서製作

지난삼십일 만주로부터 돌아가던도중에서 몸에들은 송죽촬영소감독 청수굉(淸水宏)씨는 삼십일일、일일양일동안 조선철도에대화전(大和田)영업과장 갈등(加藤)여객계장을 방문하고조선철도에서 송죽문화 영화부에의촉안 조선을 소개하는 문화영화의 제작에대하여 여러가지로협의가 잇섯는데 내용은 약일만원의 예산으로 조선산업의약진상황을 묘사한 문화영화제작으로 청수감독이 촬영소의 손이나는대로 십이월초부터 촬영을 개시하여 다시 조선에 건너올예정으로 각본은 십일월중에 완성될터이다 극영화의권위인 동감독이 조선철도와 제휴하여 제작에진출한것은 주목할만한일로 일반팬들이 열망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長斫規格統一
京畿道를標準、實施

총독부 임업과에서는 조선내에서 소비되는 장작의수요공급관계와 각지의가격가튼것을 조사중인데 현재전조선안 시장에서 매매되고잇는 장작의 가격은 한관에운천오리내지 십이전오리로서 경성가튼데서는 최고시세를 부르고잇는현상이다 내지에서는 장작의용적단위(容積單位)에 일정한 규격이 잇는데조선에는 그규격이 구구하므로 당국에서는 경기도의 장작용적단위를 정하는동시에 가격을성정하여 장작매매의 표준으로서 각도에통달하여 전조선적으로 이를통일하기로되엇다

變態漢檢擧
어린소녀셋이나 욕보이고 붓들린변태

부내 청엽정(靑葉町)일정목오십팔번지 용재동(龍才東)(二〇)은 작원 김명득(金明得)(二〇)은 지난삼십일밤 가 구네 칠번지 이창화(李昌和)의 딸 남숙(南淑)(二〇)을 꾀여가지고 청엽소학교(靑葉小學校)뒷산으로가서 욕을보이다가 어린애의 어머니에게들키어 용산서에 붓들리엇다 그런데 이자는 재작년 동경(東京)에 잇슬때에도 여러번과 열살된소녀를 절실하고도당하여으로 나왓스며고향인 충남서산(瑞山)에서도 어린소녀를욕보이엿고 지난 시월에다는 자기주인인 용재동의딸 유숙(柳淑)이를 전실남것을 자백하엿는데 동서에서는 피해자를소사하는일방 여죄가잇슬것으로보이어 엄중취조중이다

有賀光則氏
旱害義捐金 五千圓寄附

부내동사헌정(東四軒町)사십사번지 유하광칙(有賀光則)씨는 이번 하해의연금으로 금오천원을 내어노키로되어 일일 경성부에 부윤을찾고 이돈을전달하엿스므로 부윤은 즉시 이돈을 마다 조선(회사)협의그 보내기로하엿다

愛國運動의一翼으로 朝鮮學生聯盟結成
城大外十二官私立專門學校四千學生加入
明日明治佳節을卜하여朝鮮神宮에서結成式

지난오월이십이일 황공하옵게도 전국청소년학도에대하사 하사하옵신 칙어의어취지를 받들어 시국하학생의 본분을다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한날개가되려는 열의에불타는 경성제대외부내 십이관사립남녀 전문학교학생 사천을 한봉려어로 조직되는 조선학생정신연맹(朝鮮學生精神聯盟)결성식은 삼일 명치절의 가절을 택하여 오전열한시반 조선신궁에서 거행한다 동연맹은 전연학생의 자치적조직과운동에의한 애국운동으로 조선의학생운동에 획기적사실노서 주목되는데 조직은 각학교에서 네명씩의위원을 내어위원회조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일명 각교한명씩의상임위원을호선하고서대총장과 각교장을고문 참여로 추천한다 결성식은 총독대리 팔목학무과장(八木學務課長)、조선군참모장외각교장、교수들이 임석하고양이천의 학생남녀가 참집하여 먼저 궁성요배、국가합창후청소년 학도에 내리옵신 칙어를선대봉독이 봉독하고 결성까지의경과보고 식사 선언문낭독 축사가 잇슨다음만세삼창으로식을마칠예정이다 동연맹의 강령은다음과갓다

……綱領……

國家興隆의礎는 其任이我學徒의愛肩에잇다 我等學徒는率體하야 協心戮翼으로써學生으로서의本分을다하리라

來月愛國日부터는 映畫館利用宣傳
昨日의自肅成績은大體良好

애국일인 작일일 배화점 요릿집 다방 유곽 음식점등 부내일반의 자숙상황을 시찰하려고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련맹에서 사회과원을 총동원시켜다함은 기보한바로 이날거리상황을시찰한 일야(日野)경기도사회과장은 이일다음과가치 말하엿다

이날의 자숙상황은 대체로보아서 아조좃튼데 시내일일부터는 영화관을 이용하여시국영화『뉴―쓰』영화 강연등으로 이날에는 각처종업원의 교화(敎化)에 이용할터이고 배화점은 애국일다음에오는 월요일을 거절러 올려서휴업하게되엇다

陸海軍御指定
最強消毒藥
バイゾール
石炭酸ノ8倍

오늘의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理科問答 ▲六時三〇分 聖詩解說 ▲八時 西道歌謠 ▲八時三〇分 講演 ▲九時 野談 ▲九時 唱劇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 ▲六時一五分 (東)講演 ▲八時 (大)드라마 ▲八時三〇分 (東)談話 ▲九時 (東)時局講演

旱害救濟義捐
【社協接受分】

▲千五百圓 中村明治陸軍司令官 ▲百十四圓 千葉縣船橋

風會 ▲百四圓二十三錢 水原高等農林學校 ▲七十六圓九十五錢 城津營林署 ▲七十三圓三錢 新義州刑務所 ▲五十五圓九十二錢 新義州地方法院 ▲五十一圓六十七錢 平北、江界營林署 ▲四十三圓四十錢 春川師範學校 ▲十九圓五十三錢 平南、寧遠營林署 ▲三十七圓十八錢 穀物檢査所平壤出張所外十六件 ▲十三圓五十七錢 城津稅關支署外一件 ▲十五圓四十錢 咸興地方法院北靑支廳 ▲十二圓八十四錢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 ▲二十五圓七十八錢 中江鎭營林署 ▲計二千百四十三圓五十一錢 ▲累計五萬七千四百七十四圓二十錢也

美化督勵
春川署員動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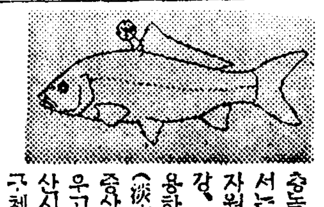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지난일일은 흥아봉공일이라하야 오전여덟시에 일제히 정렬을하고곳이어 서원총출동하여 시내에허터저 미화(美化)독려를 실시하엿다한다

高麗磁器展 珍品
昨日부터一般에公開

총독부 박물관에서는 고려도자기(高麗陶磁)약오천점과고파편(破片)약 칠십점을 특별진열하고 작일일부터 일주일동안일반에게 공개하기로되엇다 이번에 특별히공개하는 고려도자기는 고려명종지릉(明宗智陵)고려인종장릉(仁宗長陵)등고분에서파내인것으로서모두역일천수백년전고물들이다 이것은지금까지세상에공개하지못한 진품(珍品)으로서 그종류는 백자기(白磁器) 청자기(靑磁器) 진사수(辰砂手) 철채수(鐵彩手) 회사상감(繪砂象嵌) 소락수(素落手) 연상수(練上手)등인데 공개판물품은종래박물관관람료도 시설로 만밧는다

(사진은지금뒤고려도자기의일부)

戰時食糧資源의確保策
淡水鯉魚를大增産計畫
漢江、大同江에標識放流試驗



총독부수산과에서 기양어하는 시설에서는 전시식량 자원의 하나로 담수어(淡水魚)의 대증산계획을 세우고잇는데동수산시험장에서는 구체적 예비자료로 경기도와 평안남도와 협력하여 한강과 대동강에잉어각일천마리를 표지방류(標識放流)하기로되엇다 그런데가치 잉어들 구세미에다가 번호를적은분동새『세루로이드』패를부처 대동강에는 오는칠、팔양일 한강에는십、십일이틀동안 호리노장도장류수에 대하여잡힛다가 다시잡아기지고이동섭시수등을 조사하여 강험에서고 자원의 하나로 바다人고기의 표지방류는 가끔하엿스나 강人고기로 강、호수등을이용하여서는 처음이다 이성공여부는연안어업자와 고기잡이들의 협력에달려잇스므로 표지가붙은잉어를잡은사람은잡은곳과 연월일 어구(漁具)를흐터어 한강것은 경기도청수산과 수산개나 강연안면사무소 대동강것은 대동강어업조합 평안남도수산계 또는강연안면사무소나 주재소에가저가면 박사를드리기로되엇다

富平外六驛에
電報取扱所設置

체신국에서는 최근에이르러현저히발전하여 화물과여객의왕래가만하신 경인선부평(富平)중해북부선의 양양(襄陽) 경원선의안변(安邊) 고원(高原)운포(雲浦) 주을(朱乙)송산(松山)등역구내에다가 오는십일일부터 전보취급소를설치하게되엇는데 당지주민들은 물론 일반여객의편리도적지안을것이다

內科 神經科專門
李重澈醫院
主治醫 醫學博士 李重澈
世專醫學士 南命錫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入院完備 電話光化門⑵二二四〇番

明治神宮體育大會 第①日
籠球도無人之境
스파르타와平壤三中決勝에

第十回 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第五日은 神宮外苑競技場에서 天皇陛下께옵서 親臨하옵신 天覽競技가 擧行되엇는데 平壤三中과 神戶二中의 籠球準決勝戰은 午前八時에 開催되어 前半에 卅二對十二 後半에 卅二對十四 結局六十二對卅六으로 平壤三中이 大勝하엿다 이리하여 平壤三中은 天覽試合에 出場하여 決勝을 다투게되엇다 그리고 스파르타도 決勝에 進出하엿는데 新潟師範 優勝은 決定的이라고한다

◀籠球對抗男子中等決勝戰 平壤三中 62(30─32 14─12)26 神戶二中

◀籠球對抗一般男子決勝戰 스파르타 50(30─20 20─21)41 長野

軟式庭球

【東京電話同盟】軟式庭球第四日인 一日은 午前七時半부터 御茶水 코―트에서 女子各種競技와 男子社會人學校對抗을 擧行하고 日比谷 코―트에서 一般男子全日本選手權大會를 擧行하엿다

▲女子中等決勝 相田(愛媛) 4─1 松下(化)

排球

【東京電話同盟】排球競技第四日인 一日은 午前八時半부터 濱松町 코―트에서 女子中等과 男子一般의 決勝 午後에서 外

相撲

【東京電話同盟】相撲競技第四日인 一日은 午前九時부터 外苑相撲場에서 中等府縣對抗戰을 擧行하엿다

▲中等團體決勝 朝鮮 2─0 佐賀 / 朝鮮 2─0 宮崎 / 名古屋 2─1 朝鮮 / 愛知 2─1 三重 / 愛知 2─1 名古屋

◀中等府縣對抗第一回戰 神奈川(朝鮮)2─1 宇佐中(大分)

三地方對抗 蹴球
九日부터開幕

全日本三地域對抗蹴球戰朝鮮豫選을兼한 朝鮮三地方對抗蹴球戰은 十一月十一日 十二日 十三日의 三日동안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다함은 旣報한바이어니와 朝鮮蹴球協會에서는 昨日 百合園에 集合하여 同協會의 委員會를 開催하고 時日을 變更하여 來九日 十日 十一日의 三日동안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키로 決定하고 三地方(中央、北鮮、西鮮)代表의 對陣을 다음과가치 決定發表하엿다

▲十一月九日 中央(京城)對北鮮(咸興) ▲十一月十日 西鮮(平壤)對中央 ▲十一月十一日 北鮮對西鮮

學生蹴球聯盟戰
來十八日에開催

朝鮮學生蹴球聯盟에서 지난 十月二十八日에 委員會를 開催코 協議한結果 秋季學生對抗蹴球大會를 來十一月十八、十九、二十日의 三日동안 京城運動場에서 擧行케되엇다 그리고申請은 十一月十日까지라하며 同大會의 參加校의對陣은 十一月十一日에 朝鮮學生蹴球聯盟委員會에서 決定한다고한다

한해철도의구제금모집은 이제겨우 육만원에 칠락말락하고잇다◀고작모아야 백만원에 불과한돈을 모집이후 수개월을지냇건만 이와가치 성적이불량하다는것은 좀 생각할문제가 아닌가◀조선군당국자가말하드키 애국헌금、국방헌금도거개가 중류이하의 가난한사람들이 피와땀을흘려 바친것이고 부자들은 가볍게넘나기로그수가드물다고 말한것을보면◀이것역시 난처한경우의사정은어려운사람들이나 돌볏어지 부유한사람의 아량씩할것이 아니라는 세태인심을 가리치는사실이 아닐까◀잇는사람이나 업는사람이나 지금이어떤세상인가를 다시한번 기피생각하라!

虛弱の恢復に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最新刊名著案內
靑春記 破鏡 永遠의生命 時調集(全) 懷月詩抄 少年편지틀
中央印書館 京城府安國町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七八 電話光 二二九五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印章紛失 本人이昨一日에手提가방에너엇든實印(牙次楕圓型)을盜難當하엿사오니該印章은無效이옵기玆에謹告 東洋燃料會社 金桂祚

朝鮮殖産銀行

朝報案內

小學校敎員採用

女事務員採用

乳母求함

ラヂオ外務員 男女募集 朝鮮放送協會

神效藥 임질약 늑막염 濟世堂 京城府長沙町一四六

胎養調經丸 (태양조경환)
和血順氣
奏效確實
(全鮮各地有名藥房에서도本劑를販賣합니다)

때는正히晩秋! 服藥하심에 가장조흔時節!!
本劑는 오랜歲月을 두고 類만흔 婦人藥中에잇서서 오직홀로 婦人네의 絶讚을바더오는 婦人藥中의 王者올시다。事實、本劑는모든婦人病을 快治하야 婦人네의心身을 改造하는唯一無二한 靈藥이올시다。
月經不調、子宮病、冷症、帶下症과가튼 病症―이러한 病症으로 因緣하야 그날그날을 憂鬱히보내시는婦人은 本劑를 반드시服用하십시오。그리하시면 生男生女―子女가滿堂한家庭의 主婦가되십니다。
藥價 一劑(一個月分) 金五圓
製劑元 京城鐘路 合資會社 和平堂藥房 (振京一五〇〇五番)

槪說 新文學史 (三〇)

林 和

第二章

第二節 精神的準備

雜誌

雜誌로 主要雜誌의 發刊年代를 比較하여 보면 興味가있다。

一九〇五年 即 乙巳條約이 締結되기前에 創刊된雜誌는 『獨立協會月報』와 『漢城月報』(一九〇六年頃(?)創刊 柳一宣主幹)와 米國人 『乾法』(Hulbert)이 發刊한 『Korean Review』亦是 米國人 "F·오-링거"가 一八九二年一月에創刊하였다가 一年만에廢刊하고 一八九五年 一月에 『아펜셀라』가復刊했던 "Korean Repository" 等이있을따름이다。

그나마도 前記의二種은 西洋人의 朝鮮事情 硏究雜誌요 『獨立協會月報』는 新聞의 前身이요 『漢城月報』는 未詳이다。

雜誌界가 이러케寥寥하였던데 比하여 新聞은 前述한바와같이 이時代가 全盛期요 政治運動의 全盛期요 一八八三年의 『漢城旬報』 一八九六年에 『獨立』 一八九八年에 『皇城』『帝國』『每日新聞』이 一時에 興起하고 相當히 活動하였다。

그대신 一九〇五年以後、新聞界가 『大韓每日』『大韓民報』『萬歲報』等이 겨우 歐米人 或은 民會를 基礎로하여 存續한 데 反하여 雜誌界는 政治的 言論의 壓迫을 받으면서도 反面에 雜誌界는 未曾有의 殷盛 活況을 이루운 것이 있다。

一九〇五年(光武九年乙巳)頃 東京留學生會의 機關紙 『太極學報』 ... 『親睦會會報』의 發刊을 始로 一九〇六年六月엔 『大韓自强會月報』와 同年에 『朝陽報』 『夜雷』 『少年韓半島』 『家庭雜誌』 『西友』 『大韓學會月報』 等의 雜誌가 大部分이 이때에 發刊되었고 翌年엔 『大東學會』 『太極學報』 等이 發行되고 一九〇八年(隆熙二年)에 『敎育月報』 『자선부인회잡지』 在東京 『大韓興學會』의 『大韓學會月報』 翌年엔 亦是 在東京 『大韓興學會』의 『學界』 등이 發行되었다。

이中에 『大韓自强會月報』만이 『大韓民報』의 前身으로 政治的 機關이었을뿐 대부분 學會의 機關紙요 그밖에 모두 啓蒙的 行物이다。

『朝陽報』 『夜雷』와 『少年韓半島』까지가 지금의 所謂綜合雜誌요 『家庭雜誌』 『자선부인회잡지』가 婦人雜誌며 『西友』 『畿湖興學會月報』 『太極學報』 『大韓學會月報』가 學生會의 雜誌요 『商業界』 『數物雜誌』가 專門雜誌며 『大韓俱樂』 『고자회보』等이 普通啓蒙雜誌다。

이가운데 좀다른 色彩의 雜誌가 『東亞開進敎育會報』로 이것은 일즉부터 政治보다도 敎育에다 國家的 運命을 걸었던 當時上流社會와 在留內地人의 共同協力의 産物이다。

그러나 敎育과 啓蒙으로 朝鮮人의 關心이 不可不得已 나타난 現象이다。

政治의 全盛期가 新聞의 時代임에 反하여 文化와 啓蒙의 時代가 雜誌의 時代로 到來한 것은 이때 雜誌의 特徵이다。이것은 雜誌의 性質上 自然히 時代가 政治에서 啓蒙으로 옮기면서 雜誌가 『大韓每日』과 『大韓民報』의 第一線上으로 前進하였고 『내리손』과 같은 雜誌의 時代에서 朝鮮사람은 비로소 文化라는 것을 생각할 機會를 얻었다고 말할수 가있다。

新聞에 比하여 雜誌의 內容은 個人作品을 미게되는데 屬하는 點이 많이나 무엇보다 朝鮮서는 政治가 混亂하면서 文化에의 길이 열린것이다。要컨대 政治的方面 社會運動에따라 文化를 政治的情熱의 放水路로서 選擇한것이다。

이러한 文化가 當然히 貧弱한 內容으로 一貫된것은 또한 當然한結果라 아니할수없다。

朝鮮의 新文化를 理解하는데 이點은 至極히 重要한點이다。

文藝時感

文化交流와 飜譯

中 安 含 光

模倣

... 서서는 단지外來文化에 順應하는것밖게는 되지못하다。

하데精神的 自主性이란것은 그땅의文化가 一定한水準에까지發展해서 나오게된다고 自矜할수있는때에만 비로소 나타나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文化的後進國에 있어서는 어떠한 段階에 이르기까지는 그저順應과 模倣을계속해오지안흘수 업게된다。

하나一定한發展미테 精神的自主性이 생겨서 外來文化에 그저 順應模倣하는것이 아니라、그를 選擇한다는 水準에까지이르면 飜譯이편에서도 後他文化에對하여 무엇을寄與하고시퍼질것은 定한 理致일뿐만아니라 文化全體의 發展을위하여 大端히 必要한일이 아닐수없다。

이것이 文化交流의 問題이겟는데 이를위한 가장 重要한媒介手段의하나가 『飜譯』이라는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할것까지도 업는일이다。

『모던日本』朝鮮版中 朝鮮文學紹介欄을보고 나는 위선 이러한心情에서 致賀의 뜻을 表한다。

飜譯問題에對하여는 是是非非가 各條한모양이다。하나 否定的인 見解가 優勢인모양이어서 精神的自主性이 있을때에 외라는것이 外來文化를 輸入하는 境遇니있서서 實質的으로나 形式的으로나 다 생각할수있는問題다。그를採用하는것이 되겠지마는 그러치못한 境遇에있을 가지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飜譯

『丹靑』에서도 主로 否定的인 見解가 取扱되어서있다。勿論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問題가 가로노혀잇다는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수있는問題다。그는 文學作品에있어서는 言語는 單純한 表現道具인것 以上으로 精神的特性이란가 音樂的特性을 가지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다른言語로 再現하기가 거의不可能에 가깝게스리 困難한것은 定한理致다。

同一한時代的構成안에서 生長하는文學이라손치더라도、傳統을 달리하는 言語의 樣式에는 各自限界가있겟고、그다음으로는 作者와飜譯者와의 個性의相異란것도 應當 생각되어질수있는일이다。

하나 그럼에도不拘하고 이번 朝鮮版의 飜譯이 精神的特性이라든가 音樂的特性이 하는 問題가 가지는 精神的特徵이라든가 音樂的旋律을 그대로 ... 진바도잇소리라는것까지도 생각해야할問題가아닌가한다。

하나 이번紹介號를通하여 에 當初의 『플렌』이 坐礁되어 또 여러가지不可避한 事情때문은 두말할것도업는일이어니와、亦是 大局的인意味에서 그가쌓은 功勞를 노피사야할것임은 말할것도 업는바도아니겟스나、其他 小說을 이외에도 紹介되어젓스면하는作品도잇고、

優劣

勿論 이외에도 紹介되어젓스면하는作品도잇고、其他 小說에는 李孝石、李泰俊、李光洙氏等의作品이 紹介되어젓는데、金史良氏의 親切한翻譯도있다한다。

이번의 朝鮮紹介號에는、詩에 朱요한、金起林、毛允淑、金素月、白石、鄭芝溶氏等의作品이잇고、小說에는 李孝石、李泰俊、李光洙氏等의作品이 紹介되어있다。

그는 世界文學의 오늘까지의 生存競爭이 主로 飜譯에依據해 와잇다는事實만으로도 넉넉히 理解할수있는일이다。

記한바와가튼難點은、成果的인飜譯을위한 努力의必要性을말하는것은될지언정、決코 飜譯그自體에對한 反對를意味하는것일수는업는일이다。

契機

하여다는點에 對한 朝鮮文學이 이웃에 寄與한點은 무엇일가?果然觀察과思考와 描寫에잇서 朝鮮文學다운 精神的特性을 傳할이잇섯는가?

勿論 나는、그가운데는 理解와 傾聽에 値할만한 相互貢獻되어질 精神的世界를가지고있고 또그것이 認定되어질것을 밋는者이다。

하나 그러한것들이 充分히 다해진바이다 손치더라도、이번일은 로하여 朝鮮文學의 反省해야할 가장決定的인點은 亦是그 ... 을 ...

漢詩 求 集

題 霜菊

押 陽韻 部

期限 十一月十五日 (締 切)

當選漢詩

滄東考選

秋柳

佳作之二

大邱府南山町六五六 李山 許 善

紅板江橋雨織絲
新蕉消息至今時
虫行半面留書葉
蟬噪前生化蕊枝
張緖風流還寂寞
小蠻姿態更披離
靑春已有逢秋恨
當世人稀解賞眉

評曰 二三兩句純是殘柳 何亦不免刻劃之態

畫魚雜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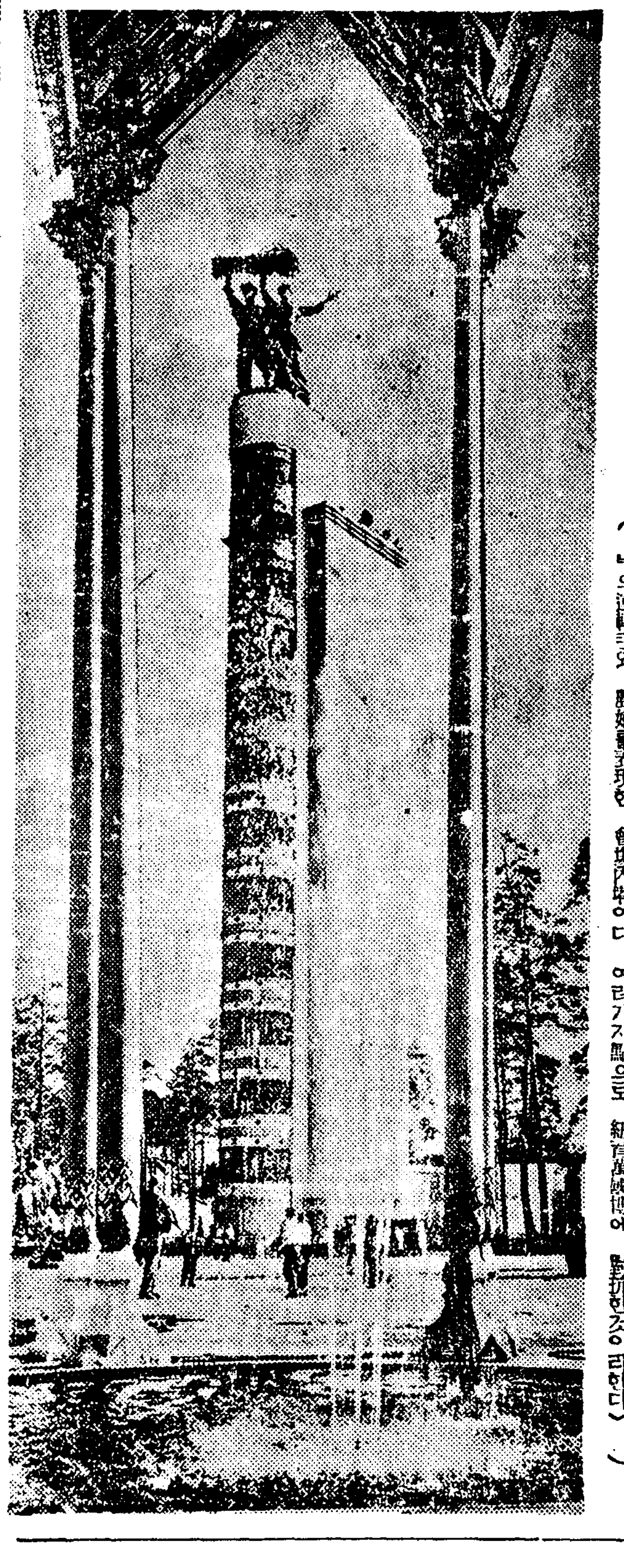
獵書餘談

洪 淳 赫

이런意味에서든 이러한飜譯紹介는 國際親善의道로서 하는 가운데있지나 아닌는가하곳 나는생각하였다。

蘇聯建築의 新樣式

(方今眞斯科에서 開催中인 『쏘베트農業展覽會』는 本目的은 集團農業을 記念하는것이라고 하지만 『쏘베트』聯邦諸民族의 建築樣式의 萬華鏡을展開시킨點에서 注目할만하다한다。(寫眞은 『드랙터』 『1』의 運轉手와 農婦를表現한 會場內의 여러가지點으로 紐育萬國博에 對抗한것이라한다)



귀의界世

獨逸大外科醫 "아" 男爵急逝

【伯林發聯合】 『원』 醫學界의 重鎭 『안톤、폰、아이젤스 베르히』 男은 二十七日밤에 奇禍로 急逝했다 享年이 七十九 歲인데 그는九 州帝大名譽博士의 稱號도 가지고있고 여러가지 醫學會의 名譽會員으로서 그가 創設한 『원』 醫學校는 世界各國의 著名한 留學生이모 여들어서 그의指導를 받든곳이었다 그래서最近까지도 『원』市外 各病院에서 大手術을하고있섯다한다

隨筆

第七의孤獨

深夜의感傷 (中)

吳 章 煥

나는 이런때이면 흔히읽는것이 『이란國人의便紙』라는 冊속에서도 官奴伐이主人을 뫼시고간 曾讀從者에게보낸 이 便紙의一節이다 이미 異域에서 늙어버린 黑人奴隷가 그의 便紙속에 보내는 連綿한鄕愁와 어떤 悲慘한境遇에 잇스면서도 그칠줄모르는 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꿈。그는 그의 最初의主人이 自由의 幸福을 祝福시키기爲하여 信者가되라고 가 進歸한 勇敢과 或은 誘感으로서 永久히 그의 품에서 男性自體를 떠여버리려함때

『가장 고되인 勞役으로因하야 고달퍼나는 내 個慾은 犧牲으로 하고 休息과 財産을 어울作定이엇다』는 그의告白이란가 그뒤에오는 悔恨과 또한 그뒤에오는 苦悶을말할때에 더한것은 몸시도 나의 지향업는마음을찌르게한다。

더욱이 그가 가른黑人官奴인 少年『자논』에게보낸 書信에는 저윽이 가슴이맥히지 안흘수업다。

내가 그대를 敎育햇스나 敎育에는 언제나 이를수업는 農奴때문에 내가그대를 사랑하고잇다는것을 그대는 오랫동안 무릇間토 만날

에 우리가튼 運命에도 父子間이란 이름을 부칠수잇다면 나는그대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드시 귀여워햇노라。

이도록 懇曲히 이야기하며 少年이無事히 돌아오기를、올때에는 『멕카』에로 들려서 旅行中의 모든罪를 반드시 씻고오기를 기다린다는 이편지는 잠안으는밤 참一로 나의가장 愛誦하는때문이다。

이미 늙은 奴隸가오직바라는한가지는 무엇인가 이제는 충충한 그의衣裳에까지 배여─더옛을 孤獨밖우엇으로써 더러버리러하는것인가。

오직 그의 빛이여 마시안는 사람은 오로지 아름다운꿈속에만이 그 住所를 두고잇는것이 안닐까。

조그나 孤獨에도 파트크

떨며 神經속에떠돌是으는소리를 나만이 밤도록 孤獨을 이기지 못하고 미처나간 天才들을 想定한다면 『페타르닌』에게 그림사이 업시 消息을 傳한 『뮤페티온』이나 또는 『짜라투스트다』가 그가 隱避하고잇던 山上의洞窟에서 그의 독수리와 그의 배암과 그의 太陽을 버리고 거리로 나다니며 說敎한것은 果然 니에게 어떠한 哀傷과 共感을 주어온것일까。

우리는 그를이比하여 말할수업슬만큼 前古 未曾有인 現實의 體驗속에서 그 어떠한 態度를 取하며 나려온것인가。어느때에 잇서서나 가장 새 時代에 飜하여 남먼저 냄새를맛고 남먼저 또一곳으로 指導를해야할 詩人의 運命으로서 우리는 어떠한成果를 이루엇다고 말할것인가。

孤獨 이中에도 내가말하고있는 孤獨이라는 뜻이 대체도 敗北에 通하여지는 것을 느낄때 나는거기에서 어떠한者에게 마주하였던것인가。

孤獨 이中에도 꿈꾸야하고 오히려 그때에잇서서는 갑시잇는 그 孤獨이란 가장 眞實한 鬪爭과 先導的인 位置에서오는것이다 그러면 내게는 그만한準備와 覺悟가 되어잇는가。

音樂으로의提携 이것이果然 내게可能할수잇다면 深淵上에서 舞踏하는 天才와 무릇 그를쫏는 우리의幻覺을 쫏하여 나는 나의몸아 운運命에 莊嚴한 伴奏를 하리라。

밤 늦게 嘆聲소리를 못고 나의 가장 親愛하는 넋이여! 나는 그대를 찻는대신

消息이라도 傳하려던 쓰다 만편지를 찌저버린다。

汽笛소리에 놀래듯 멀리 旅行을 떠나고시픈 마음이란 다시 말할 必要도업시 그는 나의 꿈이요、끈힘일시 라고나온 宿命의길로 쫓스라는 나의眞實한마음이 아니겟는가。

親愛하는 벗이여! 오히려 너를 이러케 부르는 내 心思에는 形言할수업는 孤獨과의 近似點이 잇지안흘까、나의 조그만 哀愁이 곳이랴。

意外에도 그는『짜라투스트라』가 지여낸 밤의노래、永遠한歸鄕의노래인 精神放浪의 家鄕이가 或은 黑人官奴長의 아련한 異域의 꿈인가。

三、朝鮮古書刊行會 朝鮮群書大系

朝鮮光文會刊 朝鮮叢書와 아울러 朝鮮學에 만흔 寄與를 끼친것은 朝鮮群書大系 七十餘冊이다。校正의 嚴密、價格의低廉이 前者의 特色이면 刊行의 양선것 冊數의 만흔것이 後者의 자랑일것이다。

群書大系의 처음 出版은 明治四十二年으로 光文會本 近者의 朝鮮史學會本 等은 大東野乘、霽湖의 翻印으로 그價値를 얼마쯤 덜엇겟스나 大東野乘과 燃藜記述 등 다시 震災가잇슬지 암니까 契約金은 그만두시오 이러한 말이 었게 틀리든 것은 아니니까 一라고。까다라워 보이는 그의 態度는 너머도 寬大하였섯다。十月初旬 編入試驗을 無事히마춘날 七十二冊群書가 내 손에 들어와 밤새여 가면서 落丁 有無를 살피어 본 그즐거움 하로밤을 새엿다고 괴로웟슬리는 업서는 것이다。

이것도 그後刑集 七冊을 채워거의 完全한 群書를 만들엇다。이제 그 目錄을 集別로 列擧하면 正集

三國史記　一冊
大東野乘　十三冊
朝鮮美術大觀　一冊
八域誌、擇里志、四郡志、京都雜志、北漢誌、東京雜記　一冊
中京誌、江華府志　一冊
破閑集、補閑集、櫟翁稗說、筆苑雜記、東人詩話　一冊
海東繹史　三冊
圃隱集　一冊
龍飛御天歌　一冊
懲毖錄　一冊
紀年兒覽　一冊
文獻撮要　一冊

續集

東國通鑑　三冊
東國輿地勝覽　五冊
燃藜室記述　六冊
同別集　三冊
通文館志　一冊
大典會通　一冊
東國李相國集　一冊
海行摠載　四冊
海東名臣錄　一冊
稼亭牧隱鏡 　一冊
東文選　四冊
東史綱目　一冊
星湖僿說類選　四冊
芝峯類說　三冊
東寰錄　一冊
三韓集　一冊

別集

退溪集　四冊
三峯集　一冊
南漢志　一冊
欽定滿洲源流考　一冊

이밖게 朝鮮古書目錄　一冊

이잇다。

四、無名氏의 朝鮮關係書籍

大正十四年 三月初旬、東京神田 十字屋店主 이게서 無名氏의 朝鮮史 關係書籍 五十九冊을 밧고 그 目錄을 보여 달라하여 三十三圓에 決定하여 購入하일이 잇섯다。

主로 內地人의 著書로 坊間에흔이 다니는 冊들이다。그러나 當時 나의 적은 眼目으로는처음 보는바 적지 안엇다。늘 古本屋을 뒤지고 目錄을벗하기 十餘年에 아직도 다른데서 어더 보지못한것도 잇음을 보아 단 六十冊이 못되는 것이나마 蒐集이란 그리 容易한일이 아님을 느끼고 잇다。어떤 同胞가 어떤 不得已한 事情으로 筆者에게 그 애써 모든것을 讓與하였는지는 모르겟스나 이冊들이 내손에 들어온 後로 부터 朝鮮關係의 書冊을 힘써 모아 文庫를 만들어 보겟다는 興味와 決心을 갓게 된것만은 事實이다。

文藝 其他 달리 쉽게 볼수 업는것을 이 있는以上 아직도 一般 讀者에게 주는 便宜는 不少한것이다。

大正十二年 八月下旬 W大學本科編入試驗準備를 爲하여 若干 參考書를 사고저 東京神田古本店을 뒤지든 나는 山本書店에서 또바게 群書大系 七十二冊을 보앗다 그店員을 나는 피하야 遠步나 一一冊이 그대로잇고 업는것을 念願하여 가슴을 조리거를 갈겻는 條約이 締結。契約金 二十圓을 내여 노흔 後 店主의 말을 들으니 村夫子가튼 店主의 말을 들으니 十九日、어느親友에게서 若干의 金錢을 取貸하야 가지고 談判한 結果、一、代金은 一金 六十五圓(一冊平均九十錢二厘 八毛強) 二、一個月 以內에 차저 갈것등 條約이 締結。契約金 二十圓을 내여

八道俗談(三六)

方 鍾 鉉

(三四) 고추나무에 그네를 뛰고 잣껍질로 배를 만들어 타겟다

【解】 未世가 되면 사람의키가 적어지고 콩깍질이 떨어서 고추나무에 그네를 뛸수있고 잣껍질로 배를 만들어 탈만하게된다고 있으되 이러케 말한다

(三五) 고추보다 호추가 더맵다

【解】 적다고 無視할것이 못된다함이라 【參考】 작아도 고추알 작은 고추가 맵다

(三六) 고추부서

【解】 仙女의 別名이라함은 날을 언수 이결때 이를 이라

(三七) 고칠단명

【解】 잠깨어 베개를 노코베는 사람이 얼치 죽는다 함을 高楠의 運命에이라한다

(三八) 곡부득이소

【解】 哭不得已笑(다고) 울어야할때 할수없시 웃는다함이니 即 할수업시 하게되는일을 두고이름이라

孫子講義 (五五)

李 昇 圭

故로善用兵者는屈人之兵而非戰也니라

(註) 屈人之兵은 피로써 敵을 屈하게하는것이라

(通解) 故로 善하게 兵을 用하는者는 人의兵을屈하되 싸우지안느니라

(例) 蜀漢의 將軍鄧芝가 幼安으로하여금 魏의將軍 夏侯尙을 기히케하엿더니 魏의將軍 夏侯가 와서치거늘 鄧芝가 軍士를 이끌고 救援할새 牛頭山으로 후려와서 陳泰와서루 對陣하다 陳泰가로대 兵法에 "屈人之兵"이라하니 이제 牛頭山의길을끈허서 敵의 돌아갈 길을 막고 諸軍은 各各굿게 지켜 싸우지말고 山의 糧道를 끈으라하니 姜維가 두려워서 다라나는지라 幼安이 항복하엿시 城을 陳泰에게 降服 하니라

拔人之城而非攻也니라

(註) 計策으써 城을 拔하고 攻하여 取치안는다

(通解) 人의城을拔하고 攻지안느니라

(例) 後漢의 臧宮이 妖賊을 原武에 에워(圍)서 數月이되도록 陷落치못하고 士卒은 疾疫에 빠지하는지라 東海王이 臧宮에게 말하되 이제 賊兵을 거느리고 死地에 들어 賊을 에워싸니 賊이 반드시 굿게 固守하여 힘을 다하야 抵抗할것이니 이것이 得計가아니라 마땅히 圍의 一方을 헐어노하서 그 生路를 보이면 賊이 반드시 흐터저 다라날것이니 그때에는 一亭長이 足히 賊을 生擒할수잇다하니 臧宮이 그러케 하엿드니 果然 그 賊을 擒하니라

毁人之國而非久也니라

(註) 曹公이 日人의 國을 毁滅하고 長久하게 軍士를 머무르지 안는다

(通解) 人의國을 毁滅하고 軍士를 外地에 長久히 暴露지 안느니라

(例) 隋의文帝가 高熲에게 陳을 討伐할 策을 물은대 高熲이 對答하되 江南(陳國)이 江南에在한 때는 農事의 收穫을 하는때가 中國으로 더부러 다르지아니하니 저의 農時는 우리의 閑隙이 잇는때라 이때를 타서 敵을 掩襲하라 하면 敵이 반드시 農事를 버리고 守備할것이니 그 農事하기를 기다려 우리 다시 兵을 하면 敵이 또 다시 守備하야 이와가치 하기를 再三次하면 敵의 農事를 잃것이오 또한 兵力이 漸漸 消耗할 것이오 다 人民이 또 草舍로 짓고 倉庫에 儲蓄도 다 草舍로 되었으니 가만히 사람을 보내여 불을 노흐면 그 儲蓄이 다 탈것이다 하였다 隋文帝가 그 策을 쓰니 陳國이 疲弊하니라

必以全으로爭於天下라 故로兵不頓而利可全이니 此는謀攻之法也니라

(註) 頓은 곤(困)이다

(通解) 반드시 온전함으로써 天下에 다투는지라 故로 軍士는 피로하지 아니하고 利는 가히 온전할지니 이는 謀攻의 法이니라

論爭의倫理

學者가 學問以外의 일로 怒하는 表情처럼 傳하지 안코 보다는 學者가 우수워보이는 것이업다 眞理를 探究함에 있어서 依然히 正直하는 學者가 가장 거륵해보이는 時間이다 文이라 반드시 讀者에게 무었이고 또 讀者를 稱讚하고 씨어저야할것이고 또 讀者에게 傳해주어야 할것이다 所得을 여기 文章에 從事하는 사람의 嚴格과 倫理의 『알파』가 잇다 하데 讀者를 아주 無視하지 안는 文章도 往往 잇다

讀者에게 아무所得도 傳하지 안코 다만 執筆者의 巧妙한 辯術을 구경시키기 위하여서만 쓰이지는 文章도 잇다 더하면 執筆者가 어떤 論敵에게 뒤집어 씨우는 會心의 미소에 攻擊의 奸策이 잇스리라 빙하기 爲하여 文章을 쓰는 사람도 잇다 이러한 題目에 예속 아서 읽고서 抗爭할 것은 보는 實로 讀者의 時間이고 自尊心이다 ◇ 이렇게도 오래지안어서 에 일어섯슬것이다

물려하는데 고요히 學界의 一年을 도라다볼 때 印象에 남은 일中의 한가지는 무에니 해도 "井邑詞"論爭이 엇다

그런데 이 論爭이 남겨 야할 收穫은 무엇보다도 『더 밝혀진 眞』이라야 할것이다 勿論 그렇다면 學問을 위한 以外의 動機는 千萬 뜻에 업는 그것은 決코 잇다면 우리가 論爭이라는 學 뜻에서 期待한 果實 은 아님이다 이라는 말이 업스면 그만이다 그것이 眞理에 서지 안는 것이 아니냐 『다 밝혀진 眞』이 더의才能만 남은 일이 不快感과 더마침 이러한 感情까지 남은 것이 업다

論敵의 功에 우수워 눈이가려지고 그 어느듯 論敵의 功을 인정하고 잇엇다면 兩者의 功 을 모르는 것이다 敵의 功은 功 으로 서 갓비싼 紙面으로 보아도 罪가 든 것이 잇다

論敵에게서조차 功 을 發見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야말로 讀者의 美德 이다 모든 沈默이 모두 金인것은 아니다 眞理를 위한 以外에는 發言하지 안는 沈默만이 金인것이다

學問의 世界에서는 眞理의 解明以外에 攻擊은 결코 武器가 아니다 發見되어도 그것은 讀者에게 도움이 되지 안는다 ◇

(孔 明)

斬馬錄

新刊紹介

▲林巨正 第一卷 (發兌第一冊) 洪命憙著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 送料二十一錢

▲朝鮮の農村史 續成叢論 許著 發行所 京城府鍾路六丁目八一 東洋書林 振替京城九五四五番 定價一圓

▲文章の會 十月號 發行所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〇番 定價二十錢

▲한글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苑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時調集 (朝鮮文學全集第一卷) 發行所 京城府安國町一五三 中央印刷所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定價一圓二十錢

▲朝鮮工業協會會報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國民新報 十月二十九日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每日新報社 定價十五錢

▲鑛業朝鮮 十一月號 發行所京城府堅志町一一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農民生活 十一月號 發行所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五錢

▲朝鮮の敎育研究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五丁目 京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內 朝鮮初等敎育研究會 振替京城一二三七六番 定價四十錢 送料二錢

▲向上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淀橋區千駄ケ谷四丁目六八 修養團 振替東京一〇九〇三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二錢

新春懸賞文藝募集

新人登龍의絶好機

숨은天才여 力作을들고나오라!

★短篇小說
★戲曲
★씨나리오
(四百字原稿紙五十枚內外)
各 一等 一百圓 二等 五十圓 (短篇小說)

★詩 (四百字原稿紙)
★時調 (題 새봄)
★漢詩 (題、春祝 押眞韻部)
一等 十圓

★童話 (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童謠 (題目은 自由)
一等 童話十圓・其他各五圓

★文藝評論 (四百字原稿紙三十枚內外)
題目 新世代의精神
一等五十圓

應募期限 十二月十日

審査委員

短篇小說―李泰俊・李箕永・李源朝
文藝評論―崔載瑞・朴致祐・詩―鄭芝溶・林 和・金起林・씨나리오―安夕影・徐光霽
時調―朴鍾和・漢詩―李昇圭・童謠―尹石重
戲曲・童話―李軒求・金永壽

注意 皮封에 新春懸賞이라쓰고、住所氏名을 明記할事、作品은 一切돌려지안흐며、入賞作品版權은本社에서所有함

朝鮮日報社學藝部

松竹映畫

10月30日より上映時間表

グレトワルツ 10・00
世紀の樂團 豫告篇 11・47 3・15 6・45
新しき出發 11・53 3・21 6・52
グレトワルツ 1・28 4・50 8・22

明治座

30日より 上映時間表

新しき出發 10・30
ニユース 12・00 3・25 6・45
曉に歸る 豫告篇
ブルースを唄ふ女 12・28 3・53 7・13
新しき出發 1・53 5・08 8・28

入場料30錢均一 晝夜三回入替なし

大陸劇場

(10月29日より上映時間表(早朝割引)) (日曜日は9時30分マデ)

ニユース 12・25 3・40 7・00
愛の設計 12・47 4・00 7・20
世紀の樂團 豫告篇 10・45 2・00 5・15 8・35
その前夜 10・55 2・10 5・25 8・45

若草東寶映畫劇場 電話本局 二三七番

日活映畫

十月二十八日ヨリ 十一月七日マデ

ニユース 10・00 1・05 4・10 7・20
土と兵隊 10・10 1・20 4・20 7・40

午前中入場者50せん均一

黃金座

京劇

三ノ替り 五人の笑擊兵 金毘羅船 お伊勢詣りに永く 笑オペレッタ! 先づ結婚問答を見て 次に『母』を御覽!

三十日ヨリ 第一回 十一時半 第二回 三時 第三回 六時半 最も幸福な結婚の方法を示す野心作 結婚問答

第一劇場

三十日ヨリ サンフイルム社巨作 闘爭の密林 監督 クライド・エリオット 主演 トミー・オン 超特作 血戰Gメン團 民衆の敵ギャングの本據を突く快作年の紛 チヤーレス・スターレト、大亞映 サンフイルム 提供 キートンの顏役 キートン一人二役、喜劇 第十一師團 國境第一線 比の血淚 大衆 一〇で

優美館

十一月二日より公開 大衆料金 二十錢均一 米ファースト特作 連大活劇 暗黑街突破 主演 ジエムスブレヴイン ルシルブラウン 米ラスピン特作 日本語版 ボウラ ハロルドマクラケ シケニーラム 出演 新興キネマ京都超大作 孝女白菊 主演 市川男女之助 松浦妙子 事變ニユース

新富座

十一月二日一三日 晝夜二回 一時七時開映 特別料金 階下二十錢 階上三十錢 米國マスコット社超特 大冒險連續大活劇 ハリケン× プレス 前中篇 監督 アルマンド シエーフア 主演 ジョンウエイン 松竹大船超特作 大地の妻 監督 深田修造 主演 桑野通子 助演 水戶光子 金勝時代活劇 天保斬魔劍 監督 金田繁 主演 松本榮三郞

東洋劇場

十月二十八日밤부터 南海林 作 사랑의노래 三幕四場 꿈 꿈 그러합니다 벗지나가버리면 한바랑의꿈일니다 설고 서러움이 애기가 가닥가닥 얽키고얽킨 꿈에서 비르소깨엇슬때 다만 그들의입에서는 남의그리운사랑의노래가 다시흘러나오는것이엇슴니다 白秀 脚色 李雲方 作 戀愛特急 一幕 李瑞求 作 그女子의放浪記 제비

電話光二五四番 四八九五番

桃花劇場

十一月二日一三日 晝夜二回 一時七時開映 大衆料金 階下二十錢 階上二十五錢 時局ニユース 新興東京超特作 結婚眞劍勝負 監督 沼波功雄 主演 淺井一 米國ウエイス社 超特作 魔の毒矢 監督 エルマン クリフトン 主演 レックスリース リトホウス 松竹京都超特作 くれない劍士 監督 犬塚稔 主演 本郷秀雄 伏見直江

經濟解說

支那新政權樹立과 東亞新經濟建設

①…新通貨發行은尙早

[illegible] 것이다。

×

今後 [illegible] 新中央政府가 成立되면 [illegible] 支那新政權의 [illegible]

本年度出中北支方面에對한 日本의 [illegible] 昭和十三年 同十四年(八月까지) 合計 北支 中支 合計 [illegible]

×

通貨價値의安定은 民生의根本問題이며 [illegible] 日滿支經濟의 提携에있어서 [illegible] 이다。北支에 있어서는 現在 [illegible] (계속)

米雜穀等全食糧의 强力的對策示唆

出荷命令權을知事에게

知事會議서論議

新米期를 마지하엿슴에도 不拘코 出廻는 거의 불수업고 [illegible] 知事會議에서도 此點에對하여 論議하엿섯다 卽出席한 知事側으로부터 『現在의米穀偏在를 是正할 適當한 對策을 樹立하여달나』는 要望에 對하여 湯村農林局長은 現在의食糧需給의 不圓滑에鑑하여 그改善을圖코저 米雜穀을 包含한 全食糧에對하여 强力하고 速効的인 對策을 講究中이다 라고言明하고 다시 『道知事에對하여 出荷命令權을 附與할것이냐』라는 質問에對해서는 目下法制局에서 審議中인 朝鮮米穀配給調整令이 發布實施되는때에는 右法令에基한 出荷命令權을 各道知事에게 附與할意向이다 [illegible] 히 緊要한 事項이라고 認定하며 그方策에對하여 關係當局의意見을 듣고십다 라고말하여 米穀統制에對한 强硬한 態度를 表明하엿다한다

英食料品에 配定制開始

【倫敦一日發同盟】英政府는 一日 [illegible] 配定制施行을公表하엿는데 英國에잇서서의 食糧品의 配定制施行은 이것이最初이다

英、鐵鋼、銑鐵價引上

【倫敦一日發同盟】英國軍需省은 一日以後鐵鋼 價格을 如左히引上實施하는旨를發表하엿다

一、鐵鋼價格비렛一噸에對하여 [illegible]

一、銑鐵 [illegible]

今回의引上은主로 戰爭勃發以來原料의 輸入價格이 昻騰된때문이라한다

米穀市場會社 米買上代管

國策代行키로內定

朝鮮米穀市場會社는 十一月下旬創立을 完了하고 市場의經營은 十二月上旬부터 開始하기로되엿는데 同社에서는 市場經營과함께 朝鮮內產米의 買上管理에對해서도 國策代行을 하기로目下關係者間에서 協議하고잇다 右는 日本米穀會社가 農林省米의 買上管理를 擔當하는것과가튼 立場에서 朝鮮米管理를 實行하기로한것으로 農林省米의 買上에對해서도 代行等의 方法이 考慮되고잇다한다

日滿實協評議員會

來十五、十六의兩日 東京에잇서서의 日本商工會議所總會議事堂에서 十七日全國日滿實業協會第十二回評議員會를 開催하기로되어 朝鮮에서 賀田支部長外 八評議員이 出席하는데 朝鮮側에서提出하는 議案及質疑事項은左와갓다

一、滿設開通을본 滿浦線及梅輯線의 國境驛인 滿浦鎭에잇서서의 金融及通關施設의 整備要望

▲質疑事項

一、日滿兩國에잇서서의 物價의均整은 彼我通商貿易發展上極히 [illegible]

木材需給緩和策

貨車增配等對策考究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朝鮮內木材의需給에對해서는 原因으로서 輸送能力의 不備缺陷이 指摘되어 現在北朝鮮의 森林拓殖鐵道自給自足의 方針을 堅持 [illegible] 昨年度朝鮮內消費 三百萬立方米에對하여 約四十萬立方米는 朝鮮外로부터 輸移入하고잇는狀態인바 그原因으로서는 [illegible] 貨車增配其他應急手段을 講究하기로되엇다한다

洋灰共販會社 朝鮮서는不置

洋灰配給을爲하여 內地에서는 共販會社의 新設을決定하엿는데 朝鮮에서는 [illegible] 充分機能을 發揮하고잇다한다

朴興植氏의 事業과美人

氏의面目은 秀麗하다。口唇에이르러서는 一段의魅力까지 느낄수잇다。中央의壯大한 코야말로 慶州의古墳처럼 어마어마하다。이것이豊富한 事業慾의寶庫일께다。[illegible] 이 다부러 魚族을 보바닷스니 前進만알지 後退를모른다。

【公式】 [illegible]

『나는 잠시자리에서도 計畫藝業을노코 궁리하는게 이 대단해서 [illegible] 은 平安道鮮이 [illegible]

일입니다。나는 事業以外에 아모것도 업읍니다。 나는 서울잘면서도 여지껏 그리오든(京城運動場)와 부민관에 한두번밧게 가보질 못햇서요。』

『美人은어떠신가요』 『실키야 하겟습니까만 어떠케 해보겟다는생각은 업습니다。생각할겨를이 업서서요』

그러나 氏도 망석중이는될지언정 花柳으로될 것이다。[illegible] 이니 靑年實業家로는 『꼬꾸마』가튼 存在다。

國有林民間拂下 絕對不許可方針

濫伐整理·國有林保護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森林保護의見地에서 今後國有林의 民間指定拂下에 對하여는 絕對로이것을不許可할方針으로 나가기로되엿다 그리고在來國境方面(鴨綠江、豆滿江流域)에잇서서의 國有林 指定拂下 [illegible] 三百名을넘는데 이에對해서도 契約年限의 滿了와함께 順次整理하기로되엿다 [illegible] 하여 斷然反落되기는 하엿스나 [illegible]

原皮販賣六分初配

朝鮮原皮販賣會社는 二日午前十時부터 朝鮮商議에서 第一回定時總會를開催하고 決算報告其他를附議할터인데 處分은六分으로內定되엿다고한다

[illegible]

合計 [illegible]

處分은如左

法定準備金 [illegible]

生絲暴騰으로 米國同社警告

【東京電話同盟】橫濱生絲市勢는 三十一日에는 當限이 一千圓을 突破하고 一日에는 海外의 追隨難으로 當局의 [illegible]

最近의 日本絲價格의 騰向은 米國市況에 重大影響을미치어 [illegible]

라이야移入組合總會

朝鮮自轉車라이야 中交移入組合 第一回總會는 二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議第二會議室에서 [illegible]

『인플레』基調한 根本的增勢化

鮮銀限外發行을考慮

最近鮮銀券의 [illegible] 月三十一日發行(一日總趨)이 [illegible] 三億四千九百九萬九千圓으로 五千萬圓臺로 [illegible]

[illegible]

日本海汽船會社

今二日最後的協議會

重役間에 船舶價格問題等으로 遲延되고잇는 日本海汽船會社의 設立에對하여는 마침내 十一月二日 東京에서 遞信、大藏、鐵道、海軍、拓務、對滿事務局과 北日本汽船、朝郵、大連汽船各代表者들이 參集하여 創立에 關한 最後의官民協議會를 開催키로 決定하엿는바 [illegible] 氏는 朝鮮郵船代表로서 [illegible]

歐洲의戰時經濟策

大戰勃發 二個月間 ①

近代軍備가 量으로나 質로나 尨大한資材를必要로하고 戰爭遂行에는此等資材의巨大한 消耗를 伴하므로 經濟力이充實치못한軍備는거의價値가업고 武力戰은반듯이 經濟力戰과 並行된다 特히戰爭이 長期戰化할 境遇에는食糧問題가생기어 經濟力의 大小强弱은 戰爭의勝敗에 武力以上으로 重大한要因이된다 그런데 現在에잇서서는 平時의經濟狀態下에잇서서 大規模의戰爭을 遂行할수잇는나라는 一國도업고 今次歐洲戰爭에當하여서도 關係各國은戰時經濟對策을 若心實施中이다 表面的으로는 獨逸은戰爭勃發以來顯著한 戰時經濟策을 採用코잇지안흔다 이것은 獨逸에서는 어미軍備遂行의 必要上、高度의 戰時經濟體制가整備된 때문으로서 英佛等이 現實로 戰爭에 直面해서 急速히 戰時體制로 移行해야만하는것은 이미 戰時體制가 完備된 獨逸에比較해서 確實히 戰略的으로 不利를免할수업다 九月三日 英佛獨間에 戰爭狀態가發生된以來 二個月이나되고 各國이모두 應急的措置는된모양인데 이제戰時經濟對策의主要한것을 槪觀하면 如左하다

貿易

外國貿易은 交戰國、非交戰國의 區別이업시 戰時에잇서 가장直接影響을밧는다 따라서貿易對策은 戰時經濟政策의最重要部門인데 英佛兩國은勿論 從來自由貿易을維持해오던中立國도 거의全部가 今回의戰爭結果로서 어떤程度의貿易統制를 實施하엿다고해도조타 [illegible]

寸鐵

▼…兌換券 [illegible]

▼…[illegible]

日銀券도收縮

十月三十一日 [illegible]

南鮮合同電氣總會

南鮮合同電氣會社에서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同社에서 第四十三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엿다

[illegible]

國用生絲價格基準으로 絹織物의公定價格引上

【東京電話同盟】生絲市勢의 騰貴에應하여 絹織物의 公定價格의改訂引上에 對하여는 商工省에서 目下準備中으로 [illegible]

一、現在의 絹織物公定價格은大體生絲價를 一千二百圓가량으로보고 한것으로 國用生絲價格은 [illegible]

西鮮化學工業難產

日曹系의 西鮮化學工業(資本金二千萬圓)은 [illegible]

京春鐵道一分增配

京春鐵道에서는 來二十四日午前十時부터 定時總會를開催하고 [illegible]

株式 人氣離散 低落

今日의市勢 二日

前場低迷

[illegible]

後場續落

[illegible]

東新離反濃厚

[illegible]

正米 無活氣로 休商

仁川 地方에는 相當히新米가잇다고하나 依然히 價格關係로 商談이 困難하여 市中은 一層貨物이업고 閑散裡에 氣配조차 스시안코 全혀機能이 喪失된感을주엇다

釜山 市中은依然히 商談의 意思조차업서 休業狀態를繼續하고 都賣側의 相對的去來뿐으로 價格도發表되지안허 單只沈默裡에推移되고 奧地의態度도推測難으로 動할수업서 依然한不透明場面이엇다

期米·正租不成

今日前場은 仁川期米、正租의 淸算이모두 賣買不成으로 終하엿다

▲東京國債 ▲米貨五分半 四〇八、〇〇

現物强含

[illegible]

今日의財界二日

◆米 (單位錢) 今日 比前日

正租(仁川)[illegible]

◆雜穀 (單位錢)

[illegible]

京城金(兌買)[illegible]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鮮 [illegible]

東鐵 [illegible]

◆商品 (大阪單位錢·厘)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綿絲 [illegible]

綿布 [illegible]

棉花 [illegible]

爲替

[illegible]

海外經濟 一日

[illegible]

銀行券 一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棉花

[illegible]

綿布

[illegible]

生糸

[illegible]

許免府督總 金買銀 社會買貴金銀 五九の一通門大南城京 (口入町金黃) 引受 灰吹底料金 金靑

三國志 【3】

韓龍雲 譯 熊超 畵

桃園結義와黃巾亂(三)

현덕이 그사람을 돌아보니 키가 여덟자나되고 표범의 머리와 고리눈에 제비의 턱과 범의 수염이며 소리는 우뢰갓고 형세는 닷는말 가튼지라 현덕이 그형상의 이상함을 보고 성명을 물은데

『나는 성은 장(張)이오 이름은 비(飛)요 자는 익덕(翼德)인데 대대로 탁군에 살아서 저윽이 전장이 잇스며 술을팔고 도야지를 잡으면서 천하호걸을 사귀기를 조하하더니 마침 그대의 방을보며 탄식하는것을 보고 물엇노라』

현덕이 『나는 본래 한실종친으로 · 성명은 유비인데 이제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매 도적을치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자하는 뜻이 잇스나 힘이 자라지 못함을 한탄하노라』

장비가 다시 『내가 얼마의 재산이 잇슨즉 마땅히 군사를 모집하여 그대와가치 큰일을 일으키는것이 어떠하뇨。』

하거늘 현덕이 크게 기뻐하여 가치 촌주막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더니 어떠한 큰사람이 수레를 끌고 오다가 수레를 문아페 노코 들어와서 안더니 술파는 사람을 불러서

『나는 군사에 뽑히고자 성에들어가는 길이니 술을 빨리가저오라』

하거늘 현덕이 그사람을 보니 키가 아홉자나되고 수염의 두자이며 얼굴은 연지빗가트며 봉의 눈과 누에 눈섭에 상모가 당당하고 위풍이 늠름한지라 현덕이 그사람을 청하여 한자리에 안고 성명을 물은데 그사람은 성명은 관우(關羽)요 자는 수장(壽長)이러니 뒤에 운장(雲長)이라 고첫스며 하동해량(河東解良)에 살다가 그곳의 토호가 기세를 부리고 사람을

업신여기므로 그사람을 죽이고 오 [illegible] 에뽑히고자하는 뜻을 말하거늘 현덕이 또한 자기의 뜻을 말한데 운장이 기뻐하여 가치 장비의 집으로 가서 한가지큰 일을 의론하게 되엇다 장비가 말하되

『내집 뒤에 도원(桃園)이 잇는데 꼿치 괴어서 정히 성하게 되엇스니 내일에 동산에가서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고 우리 세사람이 형제를 매저서 힘을 함께하고 마음을 가치한 연후에 큰일을 도모하자』

하거늘 현덕과 운장이 소리를 가치하여 『그러케 하는것이 대단히 조타』 하고 다음날에 도원에 모여서 검은소와 흰말과 모든 제

약을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리거든 하늘과 사람이 한가지 죽어지이다』

하고 맹세를 마친뒤에 현덕은 형이되고 관우는 다음이되고 장비는 끄테아우가 되엇다 제사를 마친뒤에 소를잡고 술을 베플어서 그 근방의 용맹잇는 사람 삼백여인을 모으고 도원 가운데서 크게 취하엿다 이튼날에 군기를 수습할새 다만 탈만한 말이 업서서 적이 생각하고 잇더니 사람이 보하되 어떠한 두사람이 여러사람과가치 한떼의 말을 몰고 그집으로 온다 하거늘 현덕이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음이라』 하고 세사람이 나가서 마저

물을 차린뒤에 세사람이 향을 피우고 두번 절한뒤에

『생각컨데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나 이미형제를 매젓스는즉 마음을 가치하고 힘을 함께하여 곤난한것을 구원하고 위태한것을 붓들어서 위로 나라에 갑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히하되 가튼해 가튼달 가튼날에 나는 것은 가치하지 아니하엿스나 다만가튼해 가튼달 가튼날에 가치죽기를 원하오니 하늘과땅은 실로이 마음을 살피사 언